제12편
소사신앙촌시대 〈제3부〉
一. 밀실(密室)
1) 밀실의 시작
2) 밀실이란 곳

二. 밀실의 역할
1) 밀실은 잃었던 두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는데 성공을 거둔 귀한 곳이다.
2) 격암유록에서는 이곳에서 일남일녀를 키운다고 예언했다(密室)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三神一體) 일인출(一人出)된 조희성님

제12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3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7회)

二. 밀실(密室)의 역할

3) 불경에서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世尊告諸比丘 有三人世人所應供養
세존고제비구 유삼인세인소응공양
云何爲 三 如來至眞正等覺
운하위 삼여래지진정등각
最尊第一天人中最高 云何爲三
최존제일천인중최고 운하위삼
一者女人 覆則妙露則不妙
일자여인 복즉묘로즉불묘
- 증일아함경12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세 사람이 있는데 세상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공양하는 바이다. 어찌하여 셋이 되는가? 여래께서 최상의 대각을 이루심이라. 가장 존귀하고 제일이신데 하늘과 사람 중에서 제일 높다. 어찌 세 사람이 되는가? 한 분은 여인이다. 가린 즉 묘하고 드러내 놓은 즉 묘하지 않다."

불경에서도 역시 세 분이 나오시는데 가장 존귀하시고 제일이신데 하늘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라고 하였다. 세 분의 부처님을 말하고 세 분의 이기신 하나님을 말하니 하늘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불경에서도 역시 성경이나 격암유록에 예언된 말씀과 똑같이 세 분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겠다.

성경에서는 아담과 해와를, 격암유록에서는 일남일녀를, 불경에서는 세 분 부처님 중 한 분은 여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법(萬法)은 귀일(歸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하나의 원리로 통일을 이룬다는 뜻이다.

4)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위 불경에서 "세 분 중 한 분은 여인이다. 가린 즉 묘하고 드러낸 즉 묘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한 분의 여인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중에서 해와하나님을 말한다. 왜 여인으로 출현하시는 해와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을 해놓고 있는 것일까?

박태선 영모님께서도 비슷한 뜻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 즉 "묵시록의 여섯째인이 먼저 떨어지면 악조건이고 일곱째인이 먼저 떨어지면 호조건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때까지 인봉하여 간수할지어다(다니엘12:8-9)"라고 했다.

일곱째 인을 떼는 자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다.
여섯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그치면 악조건이 된다.
또한 여섯번째 인을 떼는 자는 여인이다.

신약 묵시록 5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일곱인'으로 봉하였는지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한 말이 있다. 그리고 묵시록 6장에서부터는 첫째인부터 차례로 인을 떼어 나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인(印)가운데 일곱째인을 떼시는 분이 완성자 삼신일체 일인출되어 출현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니 다니엘 선지자에게 그 인봉한 인을 알려고 하지 말고 말세까지 간수하라고 한 것은 완성자 구세주가 출현하여서 그 인을 떼시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일곱인을 떼실 주인공은 어떤 분들인지 적어보겠다.

첫째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다.
둘째인의 주인공; 이삭이다.
셋째인의 주인공; 야곱이다.
넷째인의 주인공; 단이다.
다섯째인의 주인공; 박태선님이다.
여섯째인이 주인공; 해와주님이다.
일곱째인의 주인공; 아담이긴자인 조희성님이다.

이상과 같이 일곱인을 떼시는 하늘 사람들은 위에 적은 바와 같다. 그러면 일곱째인을 떼시는 분은 맨 마지막 인을 떼시는 분인데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성자 구세주이시다.

그런데 박태선 영모님은 여섯째인이 먼저 떨어지면 악조건이고, 일곱째인이 먼저 떨어지면 호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이유와 뜻은 무엇인가? 위의 적은 대로 여섯째인을 떼시는 분은 해와 이긴자이신데 만일 해와이긴자가 먼저 출현하여 온 세상에 알려지면 일곱째인을 떼실 완성자 구세주가 출현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구세주 출현이 실패한다는 뜻이 되므로 최대의 악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일곱째인이 먼저 떨어져야 호조건이란 말씀은 감추고 숨겨 출현하시는 완성자 구세주의 성공적인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섯째인은 안 떨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가 않다. 다만 여섯째인은 떨어지더라도 숨겨져서 알지 못하게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꼭꼭 숨어서 떨어져 일곱째인을 떼실 완성자의 출현이 성공할 때까지 여섯째인의 주인공은 없는 듯이 숨어서 세상에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섯째인의 주인공이 드러나면 다음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이 임박하였음을 마귀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귀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구세주 출현을 저지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섯째인의 주인공은 출현하지 않은 것같이 꼭꼭 숨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영모님은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승리하시어 완성자 구세주로 출현하신 조희성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2천년성 얘기를 해보지를 않았다. 그건 2천년성을 숨기는 과정이었던고로 2천년성을 드러내면 3천년성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고로 숨기고 가리게 되어 있다. 여태까지 하나님 그 기밀을 지켜 이긴자도 몰랐다. 마지막에 이 뚜껑을 여는 자에게 전체를 맡겨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보이시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무릎이 쳐진다.(1982년 12월 4일 조희성 주님 말씀)"

여기서 1천년성은 박태선님이시고 2천년성은 해와주님이시고, 3천년성은 조희성주님이시다. 그래서 조희성주님의 말씀은 2천년성이 드러나면 3천년성이 출현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것은 3천년성인 일곱째인을 떼실 주인공 구세주가 출현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밀의 말씀을 밝히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작전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의 뜻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정도령님 생미륵불 구세주의 출현이 이와 같은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출현하게 되는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세주 출현의 역사가 소사땅 밀실이라는 곳에서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들 구세주의 존재를 잘못 알고 찾아 잘못 따라가다 죽음으로 끝이나고 마는 것이다.

밀실은 분명 삼신이 역할하시어 삼신일체일인출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출현하는 아주 귀한 성지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22회

나를 이기는 가운데 살아 날 묘수가 있느니라

末運論(九) 말운론

患亂初發 問於何時 玄蛇前三
환란초발 문어하시 현사전삼
再發何時 牛虎兩端 재발하시 우호양단
雪胃長安 燕鴻去來之月也
설위장안 연홍거래지월야
三發天下何之年 未詳不說
삼발천하하지년 미상불설
又曰眞人世界何之年 우왈진인세계하지년
和陽嘉春也 화양가춘야
出地何處耶 출지하처야
鷄鳴龍叫溟沙十理之上 龍山之下
계명룡규명사십리지상 룡산지하
天受丹書何之年 천수단서하지년
神妙無弓造化難測 신묘무궁조화난측
鷄龍基楚 何之年 계룡기초 하지년
病身之人多出之時 병신지인다출지시

환란이 처음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 계사년(1953)의 3년 전인 경인년(1950) 6.25사변이니라. 현사(玄蛇)는 계사(癸巳)년을 말한다. 환란이 두 번째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 정축년과 무인년으로 장안에 눈이 내리고 제비는 가고 기러기가 오는 달에 일어난 외환위기를 말하느니라. 세 번째 일어나는 천하대란은 어느 때인가? 아직 상세히 말하지 못하리로다. 또 진인의 세계는 언제 오는가? 양래음퇴(陽來陰退)로서 화창한 볕이 감도는 아름다운 봄이 올 때이니라.

진인은 어느 곳으로 출현하시는가? 닭이 울고 용이 울부짖는 명사십리 위의 용산(6도81궁) 아래로 오시니라. 닭과 용은 계룡산(=정도령)을 말하고 명사십리는 흰 모래로 유명하니 소사(素砂=흰 모래)를 말하고 십리(十理)는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하나님이 다스린다.(리理=다스릴 리)는 의미가 있다. 진인이 하늘로부터 단서를 받는 때는 언제인가? 단서는 곧 해인이요 해인으로부터 신묘하고 무궁한 조화가 나오나니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니라.

지상선국 건설의 기초는 어느 때부터 시작하는가? 병신년(1956)에 많은 사람이 나올 때이니라. 승운론에 '백호당란 육년기' (白虎當亂 六年起)라 하였는데 경인(=백호白虎)년의 6.25전쟁 이후 6년 뒤인 1956년 병신년에 박태선 장로가 전도관과 신앙촌을 세우니 많은 사람이 따랐다. 하늘의 천지공사는 박태선 장로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一國分列何年時 일국분열하년시
三鳥吹鳴靑鷄之年也 삼조취명청계지년야
又分何之年 우분하지년
虎兎相爭水火相交時也
호토상쟁수화상교시야
停戰何時 龍蛇相論黃羊用事之月
정전하시 룡사상론황양용사지월
統合之年何時 龍蛇赤狗喜月也
통합지년하시 룡사적구희월야
白衣民族生之年 백의민족생지년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어느 해인가? 세 번째 새(닭)가 울 때인데 푸른 닭이 우는 해이니라. 이씨조선이 망한 후 신유년(1921년)이 첫 번째 닭이 우는 해요 계유년(1933년)이 두 번째요 을유년(1945년)이 세 번째 닭이 우는 해이니 곧 푸른 닭의 해이다. 8.15해방이 되자마자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다. 또 다시 분열되는 때는 언제인가? 범과 토끼가 서로 싸우고 물과 불이 서로 다투는 때이니라. 즉 경인년(1950년)에 일어난 6.25사변을 말한다. 수화상교는 수(水)는 북쪽을, 화(火)는 남쪽을 뜻하니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함이다.

정전은 언제 하는가? 용사상론 즉 용의 해인 임진년(1952년)과 뱀의 해인 계사년(1953년)에 정전(停戰)이 되고 황양용사지월(黃羊用事之月) 즉 누런 양의 달인 기미월 음력 6월(양력 7월)에 휴전회담이 이루어지느니라. 남북이 통합(통일)하는 때는 언제인가? 진년(용의 해)과 사년(뱀의 해)에 붉은 개가 기뻐하는 달이로다. 붉은 개는 병술(丙戌)월을 말한다. 진년은 갑진년, 사년은 을사년이고 을사년에 병술월(음력 9월)이 있다. 그 때가 백의민족이 살판나는 기쁜 해로다.

猪狗分爭心一通 저구분쟁심일통
先動之時何時 선동지시하시
白虎射殺之前無 神之發大謂也
백호사살지전무신지발대위야
中動何意 虛中有實無無有中
중동하의 허중유실무무유중
有神論者大發之時 유신론자 대발지시
末動又何 夜鬼發動 말동우하야귀발동
勝己之中鬼不知 승기지중귀부지
大發天下避亂指示謂也
대발천하피란지시위야

삼팔 이남과 이북이 나누어 개돼지(정해년1947, 병술년1946)처럼 물고 뜯으면서 다투니 첫 번째 난이 터지는 때(선동先動)는 언제인가? 백호사살의 경인년(1950) 6.25전쟁이니 전에 없이 신이 크게 노함(노발대발)이니라. 6.25전쟁은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었다. 백호는 경인년이며 사살은 총을 쏘아 죽이는 것을 말하니 전쟁을 의미한다.

중동(中動)은 무슨 뜻인가? 허(虛)중에 실(實)이 있고 유무(有無)가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이 계신다는 유신론자들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때에 십승의 가운데(전중田中)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 시기에 정도령을 꼭 만나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말동(末動)은 무슨 뜻인가? 마지막에는 야귀(夜鬼)가 발동하나니 나를 이기는 가운데 살아 날 묘수가 있느니라. 이는 귀신도 모르는 일이라. 천하에 큰 환란이 일어날 때 피란하는 법방(法方)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라.

十勝何處耶虛中有實 십승하처야허중유실
牛性和氣有人處謂也
우성화기유인처위야
兩白三豊何乎 양백삼풍하호
一勝白豊三合一處也 일승백풍삼합일처야
不老不死長仙之藥 불로불사장선지약
水昇降之村 有處謂之兩白三豊也
수승강지촌 유처위지양백삼풍야
有智君子何不愼 難察難察也
유지군자하불신 난찰난찰야
嗟嗟衆必生愼謹篤行
차차중필생신근독행

십승은 어디에 있나? 허(虛)중에 실(實)이 있으니 즉 지십승(地十勝)이 아니고 천십승(天十勝)이라. 성품이 봄바람처럼 온화한 분이 계신 곳이니라. 양백 삼풍은 무엇인가? 이긴자 한분과 양백 삼풍이 하나로 합쳐진 곳이 십승지이니라. 불로불사 장생불사의 신선의 불사약으로서 성령의 불은 내려가고 성령의 생명수는 올라가니 이른바 양백 삼풍 이니라. 지혜 있는 군자라면 어찌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겠는가마는 살펴보기가 어렵고도 어렵도다. 슬프고 슬프도다 중생들이여! 꼭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모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며 독실하게 양백 삼풍의 십승의 진리를 믿고 몸소 행해야 하느니라.

自古國家興亡 莫座天神顧獲
자고국가흥망 막좌천신고획
謹花朝鮮 瑞光濟蒼生
근화조선 서광제창생
英雄君子 自西自東集合仙中矣
영웅군자 자서자동집합선중의
塗炭百姓 急覺大夢 도탄백성 급각대몽
不遠將來目前之禍矣 可哀可哀矣
불원장래목전지화의 가애가애의

예로부터 국가의 흥망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가호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데 힘써라. 무궁화 피는 한국에 서광이 비쳐오니 뭇 창생을 구제하려는 영웅군자들이 동과 서에서 선경을 찾아 모여들게 되리라. 황금만능의 세상 속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여! 하루빨리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 머지않은 장래에 눈앞에 재앙이 닥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니 애처롭고 애처롭도다.*

박 명 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